

## 소상공인의 업종전환과 정부기관의 역할

지용하\*, 양해술<sup>1</sup>

<sup>1</sup>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정보경영학부

### The Business Transformation in Small and Micro Businesses and government's role

Yong-Ha Ji<sup>1\*</sup> and Hae-Sool Yang<sup>1</sup>

<sup>1</sup>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Information Management

**요 약** 경기침체 및 업종 과당경쟁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소상공인 육성 지원 대책을 통해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업종포화, 소비위축, 자금부족, 대형점포 출현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폐업자 증가에 따른 또 다른 특징은 업종전환을 포함한 제 2의 창업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지원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업종전환에 관한 현실적이고 신뢰할만한 요인을 추출한 후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향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좋은 정책 방향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Because of the stagnancy of business activity and an excessive competition, the number of the people who quitting of one's business is increasing rapidly. Especially, government is further efforts on the upbringing for the small and micro business. But the ratio of cessation of business is increased gradually due to the influence of saturated market, consumer confidence shrinking, lack of funding and appearance of super supermarket. The another characteristic of growth rate for the cessation of business is the increase of the second foundation of business desire to succeed. But government's business transformation policy is inadequate. So, this study is willing to give an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s support system through extraction actually and dependable data about business transformation and analysis to found a various gain model that continuous growth in small and micro business.

**Key Words** : Business Transformation, Small and Micro Business, Foundation of Business, Cessation of Business

### 1. 서론

소상공인이란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광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종사를 가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다[2].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소상공인은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균형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중요성을 지닌다. 이러한 소상공인은 경제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의 균형발진이 중시되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며, 실업해소와 고용

기회 창출 등을 위한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이 몰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각 분야의 구조조정, 기업의 부도로 인하여 회사를 퇴직한 이후 자영업에 진출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업종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민간소비가 극도로 위축 되면서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어느 정도 높은지 선진국과의 비교는 매우 유용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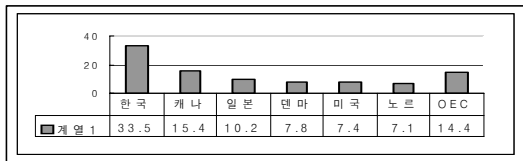
\*교신저자 : 지용하 (jy234kr@hanmail.net)

접수일 09년 11월 03일

수정일 (1차 09년 11월 27일, 2차 09년 12월 10일)

계재확정일 09년 12월 16일

재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3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직장에서 내몰린 사람들이 재취업이 여의치 않자 창업이 손쉬운 자영업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했던 1990년대 이후 계속해서 전체 비농가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 10%대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고, 일본 역시 2만 달러를 돌파한 90년대 이후 10%대에서 10% 미만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33.5%로 OECD 평균인 14.4%의 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2006 OECD회원국 자영업자 비율

자영업은 많은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하여 본인이나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운영하는 “생계형”, “가족형”이 대부분으로, 주로 음식·숙박·도소매업에 치중해 있다.

자영업자는 사회적 목적 보다는 생계 수단으로서의 경제적 목적에 치우쳐 있으며 대부분의 규모가 영세하여 외부적인 경제 환경요인에 상당히 취약하다[1].

적자를 감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외부적인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자 제2의 창업으로 불리는 업종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등의 절차 및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ReStart 프로그램(폐자영업자 전업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업종전환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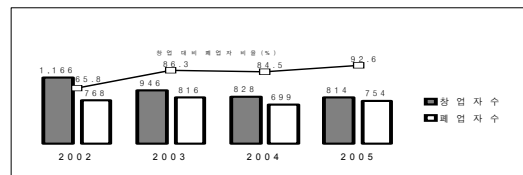
그러므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자의 붕괴는 사회적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소상공인의 업종전환에 따른 정부의 업종전환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0].

본 연구는 기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전환의 선택요인과 관련된 총 6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용 설문지를 작성하여 2개월에 걸쳐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를 기초로 소상공인의 개인적 특성, 업종선택의 결정적요인, 경영실태, 업종전환의 의사결정, 사업성과 등 5가지

요인으로 도출하여 소상공인 업종전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부지원제도의 개선점을 분석하여 보다 좋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2. 이론적 고찰과 연구의 필요성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모두 848,062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개인사업자 폐업건수는 2003년 8,105,738건에서 2004년 6,909,292건으로 줄었다가 2005년 7,503,994건, 2006년 7,507,744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림 2] 국세청 소상공인 창업·폐업 (단위:천명)

제조업에 비해 대기업 자본 진출이 없는 이른바 ‘생계형’ 창업의 진입 문턱이 낮다 보니 어려운 중·고령 실직자에게 손쉬운 생계 수단으로, 자영업자는 영세하고 생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 보다는 생계 수단으로서의 경제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사상최악의 취업의 어려움으로 창업 시장에서도 점차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자영업시장은 현재 포화상태와 폐업의 증가율이 증가추세에 있어, 제2의 창업으로 불리는 업종전환을 하려는 자영업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소상공인들은 대상으로 기존연구에서 신금순(2007)은 외식업창업자의 특성과 서비스 지향적 노력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외식업창업자 특성에 따른 고객지향성 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3]. 조종현(2007)은 창업보육센터의 특성이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경영성과는 매니저의 지식역량과 지원서비스를 위한 운영정책수립에 연구를 하였다[4]. 윤종식(2007)은 매출분석과 상관분석을 활용한 GIS 기반의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우 개인 사업자가 대부분이며 사업주기가 짧고 폐업에 관한 정보가 거의 전무 하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부실이나 부도를 정의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5]. 문구선(2007)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례 연구에서는 소상공업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각종 세부

정보, 각종 프랜차이즈 창업정보, 전국의 상권, 입지분석, 업종별 창업가이드를 DB화하여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6]. 노경섭(2006)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대사회는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창업자, 경영자가 다 인식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식을 습득해야 경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역할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7]. 육외수(2004)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창업하는 사업체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창업시점부터 창업과정 및 운영, 다양한 지식 등 경영전략에 있어서 상담하고 자문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쉽게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이 창업한 사업체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하므로 전문가의 지원에 관해 연구를 하였다[8]. 이남주(2003) 소상공인자금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지원 자금은 지정된 업종의 창업이나 경영개선 자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금 신청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 평가나 자금 유용 및 불법전용에 대한 방지책을 위한 사후관리 미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9].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경영컨설팅에 따른 경영성과 만족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창업에 관한 연구 분야는 많은 성과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정책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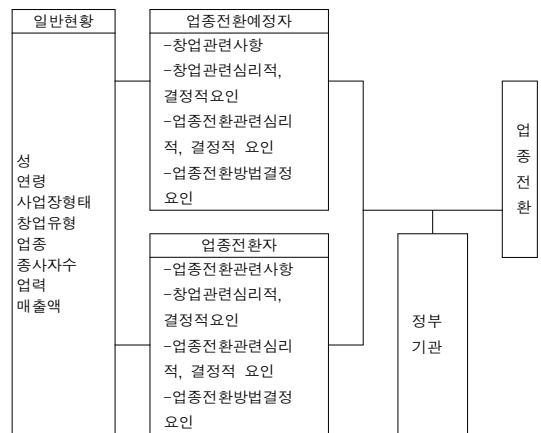
그러나 경기하락, 대형 점포출현, 업종포화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하여 창업실패로 인한 소상공인 업종전환에 관한 연구 분야는 미진한 상태에 있으며, 정부의 지원정책 또한 아주 미약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탈피하고자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들의 현실을 토대로 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분석으로 업종전환에 대한 사업성 판단을 도와줄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 3.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

현재 업종전환, 사업장이전, 휴·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현재 ReStart 프로그램(폐자영업자 전업지원)이 외에는 정부지원정책이 전무한 상태이다.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의 지원정책프로그램 중 업종전환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정부 지원 사업의 효율성, 소상공인 업종전환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제반 경영실태,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등 업종전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바탕으로 [그림 3]의 연구모형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는 업종전환의 정부지원사업의 효과도, 업종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업종전환 후 제반 경영실태, 그리고 종합성과결과에 대한 분석하는 것이다. 상기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먼저 5점 척도로 된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검증하여 판단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업종전환예정자(업종전환의사있음), 업종전환자의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일반적 특성 변수를 기초로 응답자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명목척도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비율척도에 대해서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림 3]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 하였으며 변수로는 업종전환실태를 총 60개의 항목으로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림 3]의 적합도를 기초로 하여 소상공인의 업종전환에 관한 정부기관의 심층적 분석 및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분석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 가설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종전환자의 애로사항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종전환예정자의 애로사항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3. 업종전환에 업종선택 요인, 업종전환 요인, 업종전환방법 결정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3] 연구의 모형

### 3.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업종전환에 따른 정부기관의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소상공인 중 업종을 전환한 경험이 있거나(업종전환자) 및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주(업종전환 예정자) 중 인천, 군산, 수원, 대전, 경주, 광주, 성남, 서울, 전북, 창원, 청주, 울산, 부산, 분당, 경기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으로 자기기업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회수된 자료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응답자와 업종전환예정자중 업종전환 의사가 없는 응답자는 통계 처리에서 제외한 158부(업종전환예정자의 경우 104부, 업종전환자의 경우 54부)를 회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상공인의 창업관련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chi^2$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업종전환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업종전환에 따른 주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5점 척도로 된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검증하여 본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였으며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95%의 신뢰수준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 처리는 SPSSWIN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3.2 신뢰도 분석

수집된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 신뢰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일반적으로 0.6 이상을 측정지표의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크론바흐 알파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이 응답자의 업종선택의 심리적

분석과 결정적 요인에서 0.6이상과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 신뢰수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 신뢰도 검증결과

측정항목	항목	Cronbach's Alpha
업종전환의 심리적 분석	8	.864
업종선택의 결정적 요인	6	.762
사업장 운영관리실태	6	.726
업종전환에 관한 결정적 요인	6	.802
업종전환에 관한 실증적 분석	8	.815
업종 전환 시 사업체 성과	6	.798

## 4. 연구분석

### 4.1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수행에 포함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응답자의 전체 남녀 비율은 비슷하였으나 업종전환예정자의 경우는 여자, 업종전환자의 경우는 남자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나이는 36세~55세 사이가 대부분이었다. 사업장 형태는 대부분이 개인점포 형태였으며 창업유형은 신규창업 또는 기존업체의 인수가 대부분 이었고 업종은 음식·숙박업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업종전환자의 경우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종사자수는 2명 이하 이었으며 업력은 6년 이하, 매출은 2,000만원 이하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4.2 일반적특성에 따른 업종전환시 애로사항

#### 4.2.1 업종전환자

업종전환자의 업종전환시 애로사항을 검증하기위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종전환자의 애로사항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교차분석을 통한 분석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연령의 경우 25세~35세의 경우 “상권·입지”, “자금조달”, “마케팅, 홍보 및 영업활동” 등 짚을수 록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업종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자금조달”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업력의 경우 1년~9년의 경력자는 “자금조달”, 10년 이상의 경우 “마케팅, 홍보 및 영업활동”이라고 응답하였다.

매출액의 경우 1,000만원 미만과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 1,000만원~2,000만원인 경우 “상권·입지”, 2,000만원~3,000만원인 경우 “업종선택”이라고 응답하여 애로사항이 매출액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업력” 항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4.2.2 업종전환 예정자

업종전환예정자의 업종전환시 애로사항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종전환예정자의 애로사항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교차분석을 통한 분석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연령, 업종의 경우 “자금조달” 부분에서 어려울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업력이 3년 미만 및 10년 이상의 경우 “자금조달”, 4~6년인 경우 “상권, 입지”, 7~9년의 경우 “마케팅, 홍보 및 영업활동”이라고 응답하였다.

매출액의 경우 5,000천만원의 경우 ”마케팅, 홍보 및

영업활동”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금 조달”이라고 응답 하였으며 업력 및 매출액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2] 응답자의 일반현황

구 분		전 체		업종전환예정자		업종전환자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81	(51.3)	47	(45.2)	34	(63.0)
	여자	77	(48.7)	57	(54.8)	20	(37.0)
연령	25세-35세	29	(18.4)	21	(20.2)	8	(14.8)
	36세-45세	62	(39.2)	34	(32.7)	28	(51.9)
	46세-55세	51	(32.3)	35	(33.7)	16	(29.6)
	56세 이상	15	(9.5)	13	(12.5)	2	(3.7)
사업장 형태	개인점포	130	(82.3)	86	(82.7)	44	(81.5)
	법인기업	28	(17.7)	18	(17.3)	10	(18.5)
창업유형	신규창업	61	(38.6)	54	(51.9)	7	(13.0)
	기존업체의 인수	44	(27.8)	23	(22.1)	21	(38.9)
	기업의 상속	23	(14.6)	12	(11.5)	11	(20.4)
	공동(동업)창업	29	(18.4)	14	(13.5)	15	(27.8)
	기타	1	(0.6)	1	(1.0)	0	(0.0)
업종	음식, 숙박업	75	(47.5)	55	(52.9)	20	(37.0)
	도, 소매업	37	(23.4)	17	(16.3)	20	(37.0)
	서비스업	37	(23.4)	26	(25.0)	11	(20.4)
	건설업	9	(5.7)	6	(5.8)	3	(5.6)
종사자수	1명	43	(27.2)	33	(31.7)	10	(18.5)
	2명	42	(26.6)	24	(23.1)	18	(33.3)
	3명	20	(12.7)	11	(10.6)	9	(16.7)
	4명	21	(13.3)	16	(15.4)	5	(9.3)
	5명이상	32	(20.3)	20	(19.2)	12	(22.2)
업력	1-3년	57	(36.1)	43	(41.3)	14	(25.9)
	4-6년	44	(27.8)	25	(24.0)	19	(35.2)
	7-9년	34	(21.5)	24	(23.1)	10	(18.5)
	10년이상	23	(14.6)	12	(11.5)	11	(20.4)
매출액	1,000만원미만	54	(34.2)	39	(37.5)	15	(27.8)
	1,000-2,000만원	47	(29.7)	33	(31.7)	14	(25.9)
	2,000-3,000만원	29	(18.4)	20	(19.2)	9	(16.7)
	4,000-5,000만원	23	(14.6)	9	(8.7)	14	(25.9)
	5,000만원이상	5	(3.2)	3	(2.9)	2	(3.7)
합계		158	(100.0)	104	(100.0)	54	(100.0)

[표 3] 업종전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종전환 시 애로사항

구 분		업종전환시 애로사항					χ <sup>2</sup> (p-value)
		업종선택	상권, 입지	자금조달	마케팅, 홍보 및 영업활동	기타	
		n(%)	n(%)	n(%)	n(%)	n(%)	
연령	25세-35세	0(0)	2(25.0)	2(25.0)	2(25.0)	(25.0)	18.38 (0.105)
	36세-45세	6(21.4)	5(17.9)	10(35.7)	7(25.0)	0(0)	
	46세-55세	2(12.5)	2(12.5)	10(62.5)	0(0)	2(12.5)	
	56세 이상	1(50.0)	0(0)	0(0)	1(50.0)	0(0)	
업종	음식, 숙박업	6(30.0)	2(10.0)	7(35.0)	5(25.0)	0(0)	25.61 (0.012)
	도, 소매업	3(15.0)	5(25.0)	8(40.0)	4(20.0)	0(0)	
	서비스업	0(0)	2(18.2)	5(45.5)	0(0)	4(36.4)	
	건설업	0(0)	0(0)	2(66.7)	1(33.3)	0(0)	
업역	1-3년	4(28.6)	2(14.3)	6(42.9)	2(14.3)	0(0)	16.38 (0.174)
	4-6년	3(15.8)	4(21.1)	9(47.4)	3(15.8)	0(0)	
	7-9년	2(20.0)	0(0)	5(50.0)	1(10.0)	2(20.0)	
	10년이상	0(0)	3(27.3)	2(18.2)	4(36.4)	2(18.2)	
매출액	1,000만원미만	3(20.0)	2(13.3)	7(46.7)	3(20.0)	0(0)	26.76 (0.044)
	1,000-2,000만원	2(14.3)	5(35.7)	2(14.3)	3(21.4)	2(14.3)	
	2,000-3,000만원	4(44.4)	2(22.2)	1(11.1)	2(22.2)	0(0)	
	4,000-5,000만원	0(0)	0(0)	10(71.4)	2(14.3)	2(14.3)	
	5,000만원이상	0(0)	0(0)	2(100.0)	0(0)	0(0)	
전체		9(16.7)	9(16.7)	22(40.7)	10(18.5)	4(7.4)	

[표 4] 업종전환예정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종전환 시 애로사항

구 분		업종전환시 애로사항					χ <sup>2</sup> (p-value)
		업종선택	상권, 입지	자금조달	마케팅, 홍보 및 영업활동	기타	
		n(%)	n(%)	n(%)	n(%)	n(%)	
연령	25세-35세	2(9.5)	8(38.1)	9(42.9)	2(9.5)	0(0)	18.60 (0.099)
	36세-45세	4(11.8)	7(20.6)	16(47.1)	3(8.8)	4(11.8)	
	46세-55세	5(14.3)	9(25.7)	14(40.0)	7(20.0)	0(0)	
	56세 이상	4(30.8)	0(0)	7(53.8)	2(15.4)	0(0)	
업종	음식, 숙박업	9(16.4)	17(30.9)	20(36.4)	9(16.4)	0(0)	20.10 (0.065)
	도, 소매업	2(11.8)	2(11.8)	10(58.8)	1(5.9)	2(11.8)	
	서비스업	4(15.4)	5(19.2)	13(50.0)	2(7.7)	2(7.7)	
	건설업	0(0)	0(0)	3(50.0)	3(50.0)	0(0)	
업역	1-3년	8(18.6)	10(23.3)	22(51.2)	3(7.0)	0(0)	29.31 (0.004)
	4-6년	5(20.0)	10(40.0)	9(36.0)	1(4.0)	0(0)	
	7-9년	2(8.3)	2(8.3)	10(41.7)	8(33.3)	2(8.3)	
	10년이상	0(0)	2(16.7)	5(41.7)	3(25.0)	2(16.7)	
매출액	1,000만원미만	11(28.2)	11(28.2)	17(43.6)	0(0)	0(0)	40.00 (0.001)
	1,000-2,000만원	3(9.1)	8(24.2)	14(42.4)	6(18.2)	2(6.1)	
	2,000-3,000만원	0(0)	5(25.0)	10(50.0)	5(25.0)	0(0)	
	4,000-5,000만원	0(0)	0(0)	5(55.6)	2(22.2)	2(22.2)	
	5,000만원이상	1(33.3)	0(0)	0(0)	2(66.7)	0(0)	
전체		15(14.4)	24(23.1)	46(44.2)	15(14.4)	4(3.8)	

### 5. 회귀분석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기관의 역할과 지원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업종 전환자 및 전환예정자를 대상으로 업종전환 시 업종선택 요인, 업종전환 요인, 업종전환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5.1 업종선택 요인

소상공인 중 업종전환자와 전환예정자를 대상으로 업종선택에 따른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업종전환에 업종선택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현재 업종에서 기회업종으로 전환”을 종속변수로 하고 “업종선택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업종전환자 및 업종전환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업종전환예정자를 대상으로 업종선택에 대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인의 설명력은 34.9%( $R^2=0.349$ )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이 큰 요인은 “민간사업 아이템 업종선택”(β=0.494), “평소관심분야업종선택”(β=0.387), “여유자금범위 안에서 업종선택”(β=0.1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민간사업 아이템 업종선택”은 0.01,

“평소관심분야 업종선택”은 0.001, “여유자금범위 안에서 업종 선택”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업종선택에 대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인의 설명력은 51.9%( $R^2=0.519$ )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이 큰 요인은 “전직 경험업종선택”(β=0.758), “평소관심분야업종선택”(β=-0.414), “여유자금 범위 안에서 업종선택”(β=0.2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전직 경험업종선택”은 0.001, “평소관심분야업종선택”은 0.05, “여유자금범위 안에서업종선택”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업종전환예정자의 경우 업종전환시 “평소관심분야 업종선택”의 비중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민간건설공사 추천아이템 선택”에 대한 의존 비율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전환자의 경우 “전직 경험 업종선택”과 “여유자금범위 안에서”, 그 다음으로 “정부기관” 순으로 의존 비율이 나타나 있어 업종전환자·예정자 모두 업종선택 요인에서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민간건설공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 정부정책의 신뢰성회복과 현실적인 정책제안 뒤따라야 할 것이다.

[표 5] 업종선택 요인

구 분	업종전환 예정자				업종 전환자			
	B(S.E.)	β	t	p-value	B(S.E.)	β	t	p-value
(상 수)	.946(.747)		1.265		.190(1.099)		.173	
주변 친구·지인의 권유	.021(.092)	.022	.225		.069(.123)	.070	.563	
평소 관심분야 업종선택	.466(.137)	.387	3.402	0.001	-.534(.184)	-.414	-2.898	0.006
전직경험 업종선택	-.063(.101)	-.064	-.631		.815(.171)	.758	4.756	0.000
자격증·특허실용신안선택	-.053(.114)	-.055	-.463		-.149(.203)	-.127	-.735	
유행아이템	-.021(.110)	-.026	-.189		.170(.164)	.170	1.037	
민간건설공사 추천아이템선택	.433(.101)	.494	4.301	0.000	-.106(.136)	-.103	-.783	
정부기관(소상공인지원센터등)	.207(.135)	.178	1.527		.293(.174)	.242	1.683	
여유자금 범위 안에서 업종선택	-.211(.090)	.195	-2.345	0.021	.348 (.158)	.289	2.206	0.033
자격증·전문지식으로 선택	-.140(.141)	.140	-.997		.208(.230)	.167	.902	
창업·프랜차이즈설명회	-.24 (.133)	.245	-1.810		.107(.162)	.110	.662	
언론의 인기업종	.185(.111)	.204	1.665		-.267(.145)	-.288	-1.848	
가족공동운영 선택	.063(.079)	.080	.799		-.005(.097)	-.006	-.048	
Adj R <sup>2</sup>	0.349				0.519			
F-test	5.47(0.000)				5.76(0.000)			

[표 6] 업종전환 요인

구 분	업종전환 예정자				업종 전환자			
	B(S.E.)	$\beta$	t	p-value	B (S.E.)	$\beta$	t	p-value
(상수)	.046(.356)		.128		-.508(.448)		-1.135	
경영상 어려울 경우	.082(.102)	.069	.802		.289(.152)	.211	1.896	
새로운아이템 있을 경우	.312(.095)	.305	3.276	0.001	.260(.125)	.250	2.084	0.042
우월한 경쟁점포가 있을 경우	.000(.106)	.000	-.003		-.284(.180)	-.252	-1.576	
대형점포가 생길 경우	.271(.115)	.259	2.366	0.020	.445(.113)	.441	3.932	0.000
상권·업종변화가 있을 경우	.267(.122)	.228	2.194	0.031	.419(.138)	.399	3.029	0.004
Adj R <sup>2</sup>	0.453				0.648			
F-test	18.01(0.000)				20.49(0.000)			

### 5.2 업종전환 요인

소상공인의 업종전환에 따른 심리적, 결정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업종전환에 업종전환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업종전환 후 재업종전환”을 종속변수로 하고 “업종전환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업종전환자 및 업종전환예정자에 대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업종전환예정자를 대상으로 업종전환에 대해 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인의 설명력은 45.3%(R<sup>2</sup>= 0.453)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이 큰 요인은 “새로운 아이템 이 있을 경우”(β=0.305), “대형점포가 있을 경우”(β =0.259), “상권업종의 변화가 있을 경우”(β=0.228)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새로운 아이템 이 있을 경우”는 0.01, “대형점포가 생길 경우”는 0.05, “상권·업종의 변화가 있을 경우”는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업종선택에 대해 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인의 설명력은 64.8%(R<sup>2</sup>= 0.648)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이 큰 요인은 “대형점포가 생길 경우”(β=0.441), “상권업종의 변화가 있을 경우”(β=0.399), “새로운 아이템이 있을 경우”(β=0.2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대형점포가 생길 경우”는 0.001, “새로운 아이템 이 있을 경우”는 0.05, “상권·업종의 변화가 있을 경우”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전환자나 업종전환예정자 모두 “새로운 아이템이 있을 경우”, “상권업종의 변화가 있을 경우” 등 시장원리에 의한 변화요인 뿐만 아니라 업종전환예정자의 경우 “대형점포가 생길 경우”가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크지만 업종전환자의 경우 “대형점포가 생길 경우”가 업종전환에 영향력이 큰 의미를 두고 있어 두 집단 모두 “대형점포가 생길 경우”가 의미 있게 나와 내부적 경영환경 강화 와 외부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체적인 정책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5.3 업종전환 방법 관련 결정 요인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방법에 따른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업종전환에 업종 전환 방법 결정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현재 업종에서 기회업종으로 전환”을 종속변수로 하고 “업종전환 방법 결정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업종전환자 및 업종전환예정자에 대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업종전환예정자를 대상으로 업종전환 방법에 대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인의 설명력은 23.9%(R<sup>2</sup>= 0.239)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이 큰 요인은 “지인의 권유”(β=0.381), “가업승계목적”(β=-0.3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영향력이 큰 요인은 “지인의 권유”(β =0.381), “가업승계목적”(β=-0.3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지인의 권유”는 0.001, “가업승계목적”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업종선택에 대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인의 설명력은 45.2%(R<sup>2</sup>= 0.452)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이 큰 요인은 “관련업종 교육 이수 후”(β=0.796), “정부기관 추천 업종”(β=-0.434), “지인의 권유”(β

=0.2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관련업종 교육 이수 후”는 0.001, “정부기관 추천 업종”은 0.01, “지인의 권유”는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업종전환자의 경우 “가업승계목적으로”는 업종전환을 하지 않으며 업종전환자의 경우 “정부기관 추천업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에게 정부지원 사업을 보다 더 개선 시켜 소상공인에게 신뢰를 부여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7] 업종전환 방법 결정요인

구 분	업종전환 예정자				업종전환자			
	B(S.E.)	β	t	p-value	B (S.E.)	β	t	p-value
(상 수)	1.278 (.511)		2.500	0.014	1.808 (.744)		2.430	0.019
민간소상공인(창업)컨설팅사를 통하여	.222 (.176)	.197	1.262		.070 (.155)	.059	.454	
민간 컨설팅회사(프랜차이즈본사 등)를 교육을 통하여	.005 (.178)	.005	.028		.842 (.140)	.796	6.006	0.000
정부 소상공인 컨설팅기관(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업종으로	.207 (.158)	.174	1.316		-.457 (.138)	-.434	-3.315	0.002
창업 및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통하여	.142 (.137)	.127	1.036		.109 (.129)	.108	.849	
기술학원(미용, 요리, 제빵제과 학원등..), 직업전문학교 교육등을 통하여	-.151 (.136)	-.137	-1.107		-.006 (.132)	-.005	-.042	
친구, 지인의 권유로	.423 (.107)	.381	3.958	0.000	.284 (.116)	.281	2.454	0.018
가업승계 목적으로	-.286 (.088)	-.309	-3.231	0.002	-.102 (.096)	-.126	-1.064	
제 1, 2금융권(시중은행, 새마을금고 등) 에서 대출을 받아서	.012 (.120)	.011	.097		-.194 (.117)	-.194	-1.664	
Adj R <sup>2</sup>	0.239				0.452			
F-test	4.97(0.000)				6.46(0.000)			

## 6. 결론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업종전환자 및 업종전환예정자가 경제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업종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 효율적인 정부 지원사업을 수립, 적용하기 위하여 업종전환자와 업종전환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업종전환 사유, 업종선택 요인,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제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업종을 전환하거나 전환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전환시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업종전환자 및 업종전환예정자 모두 “자금조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둘째, 업종전환을 하는 경우 업종선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업종전환 요인으로는 “새로운 아이템이 있을 경우”, “상권업종의 변화가 있을 경우”, “대형점포가 생길 경우” 등 시장원리에 의한 변화요인에 의해 업종전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소상공인들이 업종전환 결정 후 업종선택에 대한 요인 분석결과 업종전환예정자의 경우 “민간컨설팅사 추천아이템 으로 업종선택”, “평소 관심분야 업종선택”, “여유자금 범위 안에서 업종선택”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전환자의 경우 “전직 경험업종선택” “평소관심분야업종선택” “여유자금 범위 안에서 업종선택”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보다 자신의 판단 또는 자기 주변의 의견이 업종선택에 더 큰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소상공인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고 업종 전환 경험 여부에 따라 정부기관에 대한 기대차이가 있으며 시장원리에 의한 변화요인에 의해 업종전환을 고려하게 되는데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보다 자신의 판단 또는 자기 주변의 의견이 업종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관련된 기존 문헌연구를 통하여 일반적인 사항들을 고찰하였고,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들을 검증을 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종전환의 일반현황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업장형태, 창업유형, 업력, 업종 등이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특성에는 연령, 업종선택의 이유가 업종선택과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전환의 의사결정 유형을 보면 지인의 권유 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애로사항은 자금부족 부분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업성과에서는 업종전환 전과 후를 비교 하였을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운영에 따른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업종전환 후가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업종전환에 관한 요인 이외에 경기변동에 따른 외부 환경요인 등이 추가 된다면 사업성과 등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외적인 환경 요인을 추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업종전환에 있어 개인적 특성에서 나타난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전환을 준비하고 추진시켜 나가야 하며 업종전환을 위해서는 매우 철저한 분석과 다양한 요인에 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업종전환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 모델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업종전환에서 개인적 특성에서 나타난 자신의 특성과 경력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 할 수 매뉴얼 보급이 필요하다.

둘째, 업종전환에 따른 업종선정 에서는 시장의 변화와 기회에 따른 다양한 아이템개발 이 필요하다.

셋째, 업종전환에 따른 자금의 부족으로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종전환에 따른 정책자금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소상공인은 업종전환에 따른 체계적 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준비단계에서 부터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상공인 다양한 요인들이 잘 조합 되어야 하며 자신의 경험과 특성에 맞는 업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경영관리가 잘 조합 될 때 성공적인 업종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조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사업주 자신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며, 소상공인 업종전환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의 전문적이고 경영적인 지식과 기술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업종전환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ReStart 프로그램(폐자영업자 전업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소상공인은 생계형 창업자와 가족창업이 대부분으로 점포경영컨설팅에 따른 실질적 이고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함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종전환에 따른 정부지원제도가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정부지원이 있어야 될 것 이며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업종전환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신뢰성을 부여 할 수 있도록 업종별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 위주로 영속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빈봉식, 박정기, 「부산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실태조사 분석」.  
(부산 :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 부산 소상공인 지원센터, pp. 309-313, 2001.

[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규정.  
[3] 신금순 “외식업창업자의 특성과 서비스지향적 노력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52, 2007.  
[4] 조종현 “창업보육센터의 특성이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pp.55, 2007.  
[5] 윤종식 “매출분석과 상건분석을 활용한 GIS기반의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 동국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pp.23, 2007.  
[6] 문구선 “소상공인 창업지원사례연구”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논문 pp.25. 2007.  
[7] 노경섭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 대학원 석사논문 pp.21-22. 2006.  
[8] 육외수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pp.60. 2007.  
[9] 이남주 “소상공인자금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pp.70-76. 2003.  
[10] Mazzarol Tim, Thiery Volery, Noelle Dpss and Vicki Thein, 1999. Factors Influencing Small Business Start-up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5(2);48~63.  
웹사이트 및 신문사  
[11] 창업114 (www.cu114.co.kr)  
[12] 한국일보 2008.9. 29  
[13] 경향신문 2009.1.2  
[14] 문화일보 2009. 3. 31  
[15] 파이낸셜뉴스 2009.3.1

### 지 용 하(Yong-Ha Ji)

[정회원]



- 1996년 2월 : 목원대학교 경영학과
- 2006년 2월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정보경영학 (기술경영학석사)
- 2009년 10월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정보경영학 박사과정 재학 중
- 2000년 5월 ~ 현재 :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 재직중
- 2007년 1월 ~ 현재 : 여성경제인협회 전문컨설턴트
- 2008년10월 ~ 현재 : 대전광역시 중구청 전문위원
- 2008년10월 ~ 현재 : 대전여민회 자문위원

<관심분야>

창업, 마케팅, 업종전환, 특허, 휴먼에듀(MC)

**양 해 술**(Hae-Sool Yang)

[정회원]



- 1978년 2월 : 성균관대 정보처리학과 (석사)
- 1991년 3월 : 日本 오사카대학 정보공학과 S/W공학 전공 (공학 박사)
- 1980년 3월 ~ 1995년 5월 : 강원대 전자계산학과 교수
- 1995년 5월 ~ 2002년 12월 : 한국S/W품질연구소 소장
- 1999년 11월 ~ 현재 :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소프트웨어공학(특히, S/W 품질보증과 평가, 품질감리), 프로젝트관리, CBD기반기술, IT품질경영